

MBC 신년특집 기후다큐멘터리 ‘사건번호 2026 지구’

글. 목진우 MBC IT솔루션팀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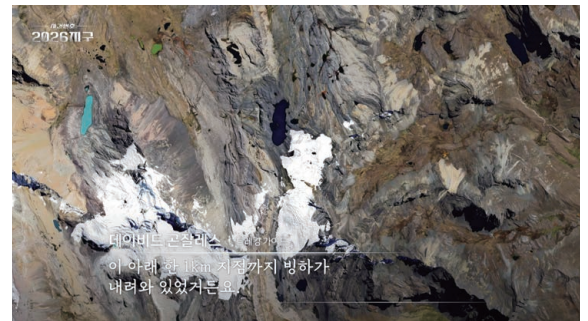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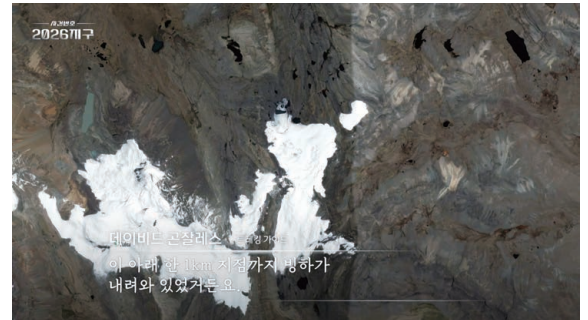
안데스, 남태평양 그리고 한국...
“기후위기, 법정에 서다”

시 열풍이 불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잊었던, 아니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싶지 않고 잊고 싶었던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기후위기. 시를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재생에너지가 주목받았던 기억은 어느덧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지'에 나도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 듯하였다. 그러다 새해에 방송된 MBC 신년특집 기후다큐멘터리 <사건번호 2026 지구>는 기후 변화, 위기에 관한 관심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었다.

방송은 처음에 페루를 보여주고 있다. 페루는 남아메리카 북쪽에 있는 나라로 적도 부근에 있는 열대지방이지만, 안데스산맥으로 인해 사막, 바다, 정글, 산맥, 고원, 협곡이 모두 존재하는 나라다. 그중 산악지대는 해발 5,000m 이상인 고산과 고원들이 있으며 여기에 있는 열대 빙하에서 흘러나온 물과 영양이 풍부한 토양은 고대 잉카 문명부터 이 지역의 문화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을 일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중 파스토루리 빙하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스키대회가 열릴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컸지만, 최근에는 규모가 많이 줄었으며,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빙하 호수도 생겨

났다. 그리고 그 호수는 점점 커지고 있다. 열대빙하를 토대로 건조한 시기를 넘기는 페루에서 빙하가 줄어들면 안데스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삶의 변화를 겪고 있다.



빙하의 면적 비교



호수가 생겨난 페루의 파스토루리 빙하

페루에서는 계속해서 빙하 호수가 생기고 있으며, 빙하호 범람 홍수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1941년에 페루 와라스 인근 팔카코차 빙하호 범람으로 발생한 대규모 토석류(알루비온)인 알루비온 데 와라스로 도시가 파괴되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생겼던 기억을 가진 지역의 주민들은 빙하호의 계속된 발생은 이때의 역사 속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있다. 그리고 2025년 4월에도 알루비온이 발생해서 10km 이상이 피해를 보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빙하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같이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186개국 중 132위인 페루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책임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있다. 방송에서는 서울 루시야를 찾아갔다.



팔카코차 빙하 호수의 범람

그는 페루 팔카코차 호수 인근에서 농부이자 산악 가이드로, 가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것이 느껴졌다. 물도 줄어들고 벌레도 많아지는 것을 느낀 그는 그와 함께 빙하호인 팔카코차 호수의 범람 위협으로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서울은 이에 독일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RWE에 이러한 기후 변화의 책임으로 독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유럽 최대급 이산화탄소 배출 기업으로 평가받는 이 기업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친 기후 변화에 책임이 있다는 의미였다. 서울은 0.47%의 기후 변화에 책임이 있다고 평가받은 RWE를 상대로 비례 책임의 원칙으로 팔카코차 호수 범람 방지 총비용에 350만 유로(약 52억 원) 중 0.47%, 약 2,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독일 에센지방법원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하지만 서울은 포기하지 않고 독일 함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함고등법원은 개별 기업도 기후 변화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상 최초로 기후 소송에 증거 조사 단계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독일 함고등법원은 개별 기업의 책임 원칙은 인정하였으나, 서울의 자택이 임박한 위험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은 법적으로 기업의 책임을 강제하는 데는 실패하였으나, 서울의 이러한 행동은 개별 기업이 기후위기의 책임이 있고, 법원이 이 책임을 강제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기후 정의는 그렇게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하였다.

페루에 이어 섬나라인 강원도보다 면적이 작은 바누아투를 찾아갔다. 산호초와 모래톱으로 이루어진 얇은 해역인 라군. 라군은 수영과 스노클링을 하기 좋아 휴양지로 인기가 많으나,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산호초가 약해지면 쉽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한 바누아투는 섬나라인 만큼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다.



RWE 라인베스트팔렌 전력회사
독일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
유럽 최대급 이산화탄소 배출 기업으로 평가받음.



오세아니아의 멜라네시아에 있는 국가, 바누아투.
국토 면적은 약 1만 2,189km², 2019년 기준 인구는 약 30만 명이다

유럽 최대급 이산화탄소 배출 기업으로 평가받는 독일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 RWE에 대한 소개 부분



사이클론의 피해로 문을 닫은 리조트



도르나 라라십 초등학교 교장

저는 매우 불안합니다.
학교에 1,124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열대 폭풍으로 폐허가 된 바누아투의 초등학교

하지만 바누아투의 남태평양 대학교 로스쿨의 학생들은 이러한 피해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후 소송을 시작하였다. 국제환경법 수업을 듣던 학생들은 바누아투 위협의 책임을 산업 선진국에 책임을 묻겠다고 생각하였고, UN에 공식적인 의견을 요청하였다. 사모아, 피지, 솔로몬에서 온 섬나라 학생들에게 기후위기는 나와 내 가족의 일이었기에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들의 행동은 전 세계의 공감을 얻어 UN 총회 안건으로 선정되었고, UN 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기후 변화에 대한 자문을 공식 요청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

2025. 07.

자문의견

“국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법상 의무를 갖는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기후 관련 국가가 국제법상 의무를 갖는다고 판결하였다

관광객이 북적이던 리조트도 열대 폭풍인 사이클론의 피해 이후 문을 닫아 리조트의 흔적만 남아 있다. 열대 폭풍으로 교실도 파손되어 구호용 천막에서 수업하는 학교는 최근에도 폭우로 건물이 망가져 몇 개 남지 않는 건물도 출입금지가 되고 점점 면적이 좁아져 가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여 더 강력해진 사이클론으로 바누아투의 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바누아투의 가장 큰 사업인 농업도 기후 변화가 불러온 폭우로 인해 모든 작물이 사라졌다. 해수면 온도도 상승해 산호도 죽었고, 산호가 사라지자 물고기들도 떠나 어업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많은 사람도 바누아투를 떠나고 있다. 온실가스는 거의 배출하지 않지만 이러한 기후 변화의 피해를 받는 바누아투, 이러한 바누아투의 주민들은 그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국가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법상 의무를 갖는다’라는 의견을 내렸다. 기후와 관련되어 국가가 어떤 의무가 있는지와 기후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국제법상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게 되었다.





기후 정의를 외친 행진

한국으로 온 방송은 서울에서 기후 정의를 외친 행진을 보여주며, 청소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한국의 탄소 중립 목표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국민의 기본법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람들은 이를 기후 소송이라고 하였다. 핵심은 법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청구인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정책이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떠넘긴다는 주장이었다. 청소년부터 어린이, 영유아들의 헌법소원은 4년간 모두 4개가 청구되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법률에 반영하라고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감축 목표 자체가 지나치게 작고, 순 배출량 기준에만 의존한다는 점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기후 대응을 헌법의 문제로 판단한 결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았고, 한국에서의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의 정책 선택을 넘어 국가가 지켜야 하는 국민의 권리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대한민국 기후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서산으로 간 방송은 풍작의 기대를 품었으나, 이례적으로 길어진 가을비에 무참히 꺾인 농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사를 짓는 일은 기후위기를 겪는 일이 되어가고 있다. 농부들은 한국전력과 5개 발전 공기업을 상대로 기후위기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기후 재난의 위기에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국가만의 책임이 아닌, 기본권을 지키지 못한 정책, 기후 재난 피해를 막지 못한 대책,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기업들의 낡은 영업 방식까지, 우리와 미래세대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모든 게 기후 소송의 피고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방송은 일본 청소년 기후 소송을 제기한 일본 청년들을 보여준다. 일본 최초 기후 소송을 했던 청년들이 한국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방문했다.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일본, 타이완 등에서 같은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이들이 연대하고 있다. 이제 세계 시민들은 어깨를 맞대고 기후위기에 책임을 법정에서 묻고 있다. 기후 변화에 국경이 없듯, 그에 맞서는 의지 역시 국경을 넘고 있다.

또한, 방송은 마지막으로 법원이 오랫동안 기후위기를 법적 문제로 해석하는 것에 주저하였다고 얘기하며, 이는 기후위기의 변화가 장기간 걸쳐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개별 사안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남아메리카 페루부터, 남태평양 바누아투, 그리고 한국, 아시아에서의 사례를 보며 법원의 변화와



국내 농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

과학적 설명이 이러한 목소리를 꾸준히 냈던 사람들을 언급하며, 이들을 기억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한여름의 무더위, 그리고 폭우, 겨울의 강추위.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날씨 속에서 기후위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조금씩 경고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음에도 지금의 삶을 포기하기 어렵기에 모른 척하고 있었다. 이제 기후 변화는 지구의 곳곳에서 급작스럽게 바뀌는 날씨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조금씩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해 지구 반대편 페루에서부터 바누아투, 한국에 이르기까지 힘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계기가 이번 방송을 통해 전달되었길 기대한다. 

사건번호 2026지구



일본 청소년 기후소송 2024.08

청소년 16명이 온실가스 긴급 감축을 요구하며 일본 10개 전력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일본 청소년 기후 소송